



죽어가는 환자들과 함께 일하기 (Working with dying people)

- 충분히 좋은 치료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On being good-enough) -

Peter Speck (Caring for the Cancer: The institutional Dynamics)

번역 : 이 창 결 _ 연세대 의대 교수, 세브란스호스피스 실장

지속적인 친절함(Chronic Niceness)

호스피스에서 말기환자를 돌보는 전문가는 명량한 사람으로 비치지만,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높은 수준의 care를 제공하여 환자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호스피스 종사자들은 남을 돌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지만, 죽어가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면하는 위험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친절함이다. 그것으로 개인이나 단체는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분리시키고 부정하도록 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죽음을 맞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들은 항상 좋은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환상이 있다. 이것은 돌보는 이와 죽어가는 환자와의 관계가 가끔 매우 원초적이고 걱정될 정도로 좋지 않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을 망각하게 해준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돌보는 이는 이런 지속적 친절함에 대한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다.

마치 환자와 그 동료들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알

게 되는 것이 그들이 이루어 놓은 일치감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친절하기 위해서는 그리 좋지 못한 감정은 분리시켜서 치료진 그룹 밖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압력 - 우리에게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지 않는 등의 - 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자에 관한 많은 불평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그룹이 종사자간의 결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paranoid-schizoid position으로 이동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경우 의도된 어떤 처방도 일하는 그룹에 의해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환자와 치료진을 분리시키는 부정적인 감정은 환자의 친지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은 치료의 수준과 치료진이 환자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기도 한다. 신뢰감을 주고 남을 돌볼 줄 알고 친절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이미지는 공격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미 환자 자신이 독립적인 관계에 있고 치료진들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이 주로 그럴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1) 생존자로서의 죄책감과 감사의 필요성

앞서 Mrs Brown과 나의 만남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내 자식 아남을 알게 되면서 오는 많은 위안을 경험하였다. 정신분석학자들이 광적인 승리 (manic triumph) 라고 부르는 이 감정은 종종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이것은 죄의식을 가져오기도 한다 (프로이트 1917). 그 사람에게 그것은 그 자신의 죽음 혹은 그에게 중요한 누군가에게도 일어나려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압력이며 그것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 일수 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명백한 괴로운 얼굴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분리시키고 부정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게 된다. 그러나 만일 걱정스러운 감정과 편안한 감정의 서로 상반된 것을 동시에 느낀다면 그 고통은 지나친 분리, 감정투사 그리고 부정함에 의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환자의 감사는 생존자 죄책감을 훨씬 덜게 해준다. 그러나 늘 좋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환자만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치료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데 다음의 예문처럼 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역할 속에서 처신할 수 있도록 일깨워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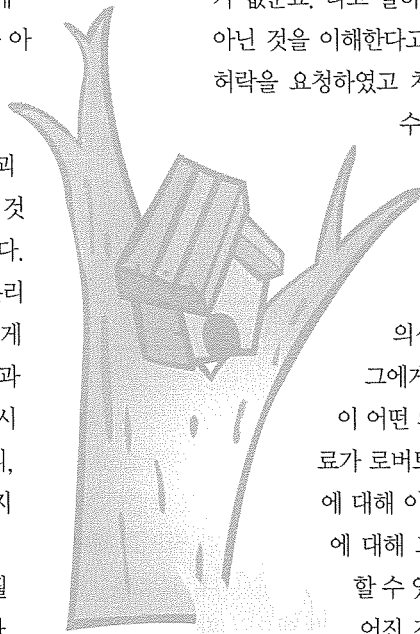
로버트는 두 어린이를 가진 35세의 기혼남자였다. 그가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그 날, 그는 처음에 무척 괴로워하였고 모든 것을 거부하며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내가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 의료진들

은 로버트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나는 그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첫 만남에서 로버트는 그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며 지난 며칠간의 일로서 이것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나는 강압적으로 종교를 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며 지난 며칠간의 일에 대해 그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하였다.

로버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울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지금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군요.”라고 말하였다. 나는 지금은 말할 기분이 아닌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다시 방문해도 좋은지 허락을 요청하였고 치료진이 언제라도 나와 접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몇 주간 계속되는 치료와 돌봄이 있는 가운데 나는 정기적으로 로버트를 방문하였다.

이 방문중에는 공식적인 종교적 의식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에게 수술 불가능한 암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그리고 치료가 로버트와 그의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것들 중의 일부에 대해 그는 다른 치료진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로버트는 미래가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 그의 부인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였다. 로버트는 그가 이해하고 있는 인생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해 내가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나를 지지와 의지자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연차휴가를 떠날 때가 되어, 나는 로버트에게 내가 없는 동안 내 역할을 대신해 줄 동료를 소개해주었다. 이때 그는 장이 폐쇄되어 완화적 수술을 받아야만 하였다. 비록 그가 수술에서 잘 회복하였으나 그의 전신 상태가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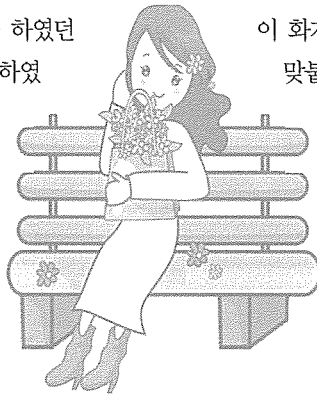


들에 대한 그의 불안은 좀더 다급해졌다. 비록 아이들이 아버지의 질병에 대한 것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몇 차례 가족과의 면담이 있었다. 그러나 로버트는 여전히 더 말할 기회를 갖고 싶었지만 마침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나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는 아이들과 부인에게 각각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였다. 편지는 긴 시간에 걸쳐 마침내 완성되었고 나에게 그것들을 맡기면서 잘 간직하였다가 그의 부인에게 그가 하였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음 그는 휴가를 가기 전날 밤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날 밤 내가 방문하였을 때 로버트는 매우 차분하였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많은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그가 여전히 찾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강조하였다. 나는 로버트가 마지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해야 할 많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지만 주된 감정은 이루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있었다. 이 순간 나는 로버트가 이 새로운 행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주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주어진 시간에 그가 원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런 뒤섞인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로버트가 나에게 내일 휴가를 떠날 것이라고 물어왔다. 그 다음 그가 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지를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로버트는 화가나 소리 치며 '빌어먹을, 당신에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군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돌아오면 죽어 있을 거구요. 빌어먹을, 휴일 잘 보내 시구려!' 라고 말했다. 그다음 그는 침대에서 나를 외면하여 돌아누우며 이불을 그의 머리위로 잡아당겼다.

나는 이처럼 부당한 분출에 대해, 그리고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지는 것이 화가 났다. 나는 로버트와의 문제에 맞붙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로버트가 그의 마지막 작별인사에 대해 후회나 나쁘다고 느낄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 자신의 일부도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좋은 관계를 망쳐버린 그가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고 있었다. 나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심사숙고할 여



편 노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내가 로버트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로버트, 나는 당신이 내가 휴가감에 대해 화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안녕을 고해야겠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으므로 나는 병실을 나왔고 병동 간호사를 만났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화가 나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하였다. 나는 사무실로 가서 커피를 마셨고 로버트와 나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